쓸쓸히 떠난 어린 왕비…친언니 영혼 곁에서 안식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⑳

9대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 - 순릉

순릉을 찾은 관람객들이 문화재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순릉의 정자각.

봉분 뒤에 우아하게 핀 야생화.

성종은 몇 개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부인 수 12명, 1위다. 자녀수 16남 12녀 합 28명, 2위다. 1위는 12남 17녀를 생산한 3대 태종이다. 생산한 아들의 수는 성종이 태종보다 많다. 1위는 2대 정종이다. 17명의 아들을 생산했으나 실권이 없었던 왕이라 의미가 없다.

그 많은 아들딸 중 첫째 부인 공혜왕후가 낳은 자식은 한 명도 없다. 속된 말로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아버지 한명회의 정략에 의해 올린 가례이니 첫날밤인들 운우지정을 제대로 나눴을까. 성종은 담력과 체력을 타고났다. 왕관을 거머쥔 것도 그 덕분이다. 벼락이 떨어져 지척에서 내관이 죽어 자빠지는 데도 열세 살 소년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왕들의 병약함에 질린 대비마마가 그를 왕으로 임명했다. 성종은 비록 38세로 승하했지만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넘쳤다. 당시 스캔들의 여왕 어우동과도 어울렸다는 야사가 전할 정도다. 어우동은 누구인가. 재미삼아 잠깐 살펴보자.

양가의 여자로서 행동이 문란하여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성종 때 인물이다. 아버지는 지승문을 지냈으며 성은 박씨다. 종실 태강수의 아내가 되었으나 행실이 방탕하여 소박맞았다. 여러 조관 및 유생들과 관계하였다. 조정에서 알고 그와 관계한 자들을 문초한 것이 수십 명이었다. 결국, 어우동도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사형 당했다.

"지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여자들이 음행을 많이 자행한다. 만약에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징계되는 바가 없을 텐데, 풍속이 어떻게 바로 서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끝내 나쁜 짓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어우동이 음행을 자행한 것이 이와 같은데, 중형에 처하지 않고서 어찌하겠는가(성종 11년 10월18일)." 성종은 어우동을 사형에 처한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내심은 그만이 알고 있다.

왕비는 만백성의 어머니, 국모로 추앙받는다. 그러나 왕비가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면 임금은 물론 후궁들로부터도 괄시를 받는다. 요즘도 그렇지 않은가. 며느리가 첫아들을 낳으면 목소리가 달라진다. 왕의 첫째 부인이면서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정종, 단종, 성종, 중종, 인종, 선조, 정조, 헌종의 원비는 자식이 없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석녀)의 경우가 있고, 아예 독수공방으로 세월을 보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공혜왕후는 후자가 아닐까. 성종과 후궁 숙의 홍씨 사이에는 무려 7남3녀가 태어났다.

평범한 백성들은 개똥이, 소똥이로 불리는 아이를 잘도 낳지만 왕비, 후궁, 귀족가문 여인들은 불임이 많다. 운동 부족이 불임의 큰 요인이다. 그들은 거의 궁중이나 집안에서만 생활 한다. 주로 앉아 지내며 외출할 때는 가마를 타고 다닌다. 간편한 복장을 할 겨를이 없다. 무겁고 치렁치렁한 정장차림으로 하루 종일 지내야 한다. 운동이라고는 거의 없다. 그러니 임신하기 어렵다.

14세때 성종의 첫번째 왕비로 책봉
아버지 한명회의 정략에 따라 가례
승하 후 친언니 장순왕후 옆에 묻혀

그런 여인네들이 명산대찰로 백일기도를 다녀오면 임신이 된다. 불공 탓도 있지만 산길을 걷고 절을 많이 하니 하체와 허리 운동이 된다. 자궁을 비롯한 생식기가 들어있는 골반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배란이 좋아진다.

국모의 불임은 국가적 불행이다. 소생이 없는 공혜왕후의 죽음에 대한 이유는 기록이 없다. 그녀가 죽자 국모의 자리는 숙의 윤씨가 차지한다. 왕비로 책봉되던 해에 세자 융(연산군)을 낳는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폐비 윤씨로 불리고 있다. 불길한 기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꿈틀대기 시작한다.

눈보라와 매서운 칼바람 몰아치는 겨울밤, 공릉과 순릉을 넘나드는 자매의 살가운 대화가 들린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 30여 미터에 그녀들이 묻혀있다. 시숙모, 조카며느리라는 엄한 계율을 떠나, 그들은 10대 소녀들이다. 요즘으로 치면 미니스커트 입고 캠퍼스를 활보할 대학 새내기 또래다.

"언니, 춥지 않아?"

"괜찮아. 넌?"

"응, 나도 괜찮아. 하얀 눈이불이 소복한데 뭘."

언니 장순왕후(예종 원비)는 17세, 동생 공혜왕후는 19세에 죽었다. 그들은 열한 살 터울 자매다. 또래의 언어를 써보지 못하고 지엄한 궁중어에 주눅 들어 죽은 가련한 영혼들이다.

공혜왕후 한씨(1456~1474)는 9대 성종의 원비다. 한명회의 넷째 딸로 예종 비 장순왕후의 친동생이다. 순릉과 장순왕후의 공릉은 지척에서 마주보고 있다. 공혜왕후는 12세(1467년) 때 한 살 어린 의경세자(덕종)의 둘째 아들 자산군과 가례를 올렸다. 예종은 선왕 세조의 장례를 치르면서 건강을 잃어 재위 14개월 만에 승하했다. 이때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은 겨우 3세에 불과했고 의경세자의 맏아들 월산군은 15세였으나 병약했다. 예종이 죽던 날 왕위 결정권을 가진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는 13세의 자을산군(자산군에서 자을산군으로 개봉)을 왕으로 지명했다. 한씨는 자동적으로 왕비가 되었다.

공혜왕후는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으나 예의바르고 효성이 지극해 내명부의 세 어른(대왕대비 세조비 정희왕후-시할머니, 왕대비 덕종비 소혜왕후(인수대비)-시어머니, 대비 예종계비 안순왕후-시숙모)의 귀여움을 받았다.

왕비로 책봉된 지 5년 만에, 19세의 나이로 후사 없이 승하했다. 왕비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순릉은 세자빈 신분으로 죽은 언니 장순왕후의 공릉에 비해 구성물이 더 많다.

글=이우상 (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 (사진작가)

순릉은

공순영릉이라 불리는 능역 안에 있다. 공순영릉은, 8대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의 능인 공릉, 9대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의 능인 순릉, 21대 영조의 맏아들 진종(추존)과 그의 비 효순왕후의 능인 영릉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사적 제205호.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산 4-1. 면적 132만3105㎡ (4만239평).

전기가 필요없는
태양광 정원등

◆원리 : 상단에 부착된 태양전판이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해두었다가 밤에 자동으로 불이 켜진다.
◆장점 : · 전기료가 들지않는다. · 전선이 없으므로 배선공사가 필요없다.
· 전구수명은 반영구적이다. 자동으로 충전과 점등이 되므로 부재시 방범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태양광 정원등(1) 230cm 600,000 → 360,000
태양광 정원등(2) 160cm 220,000 → 150,000
태양광 정원등(3) 150cm 130,000 → 110,000
태양광 정원등(4) 100cm 178,000 → 120,000
태양광 정원등(5) 103cm 200,000 → 140,000
태양광 정원등(6) 90cm 88,000 → 55,000
태양광 정원등(7) 83cm 250,000 → 220,000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사찰 · 암자 · 토굴 및 현대불교신문 독자분께 할인하여 드리며, 작은 사은품도 준비했습니다.

태양광 벽등

65,000 → 46,000
65,000 → 46,000
55,000 → 35,000
65,000 → 42,000

태양광 잔디등(小)

53cm 55,000 → 33,000
47cm 80,000 → 56,000
49cm 55,000 → 30,000
31cm 66,000 → 40,000
50cm 86,000 → 50,000

다용도 태양광 랜턴

1.전원없는 토굴/암자에 전등용으로 사용
2. 손전등으로 사용 3. 휴대용이, 이동용이
4. 디카/CD기/라디오/MP3등 AA SIZE 밧데리가 장착되는 제품 사용가능
100,000 → 70,000

* 사은품은 태양광스탠드로서 3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드립니다.

태양광 데크등

30만이상고객께 드리는 사은품

코스모스환보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8 광장B/D 401호 TEL 032)347-0830~1 / FAX 032)346-0830
http://www.cosmoshuanbo.com 계좌번호 : 농협 216014-51-257956 (예금주:오승열)